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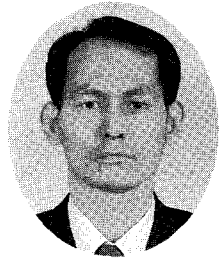
일본의 양계소식

산란계

1. 소란 가격 인상요인

1) 영업방법의 변경

- (1) 근년 들어 계란영업담당자는 소란의 판매대책과 대상고 증가의 관점에서 할인점으로부터 외식·중식산업으로 영업장소를 옮겨왔다.
- (2) 영업장소를 옮길 때 판매에 어려움을 겪던 중간크기 이하의 작은 계란을 섞어 넣는 영업전략을 세웠다.
- (3) 현재 외식·중식산업은 중·소 크기 계란과 가공용의 커다란 소비 시장으로 판도가 바뀌었다.



윤 병 선
한일사료(주) 기술연구소 부소장
농학박사

2) 소비자의 구매의욕 변화

- (1) 여성의 사회진출이 넓어지고 세대별 인구가 감소하는 영향으로 외식·중식산업의 간편성이나 일상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높아져 있다.
- (2) 실제로 외식·중식산업은 지금의 소비불황 중에서도 순조롭게 점포수와 고객이 늘고 있다.
- (3) 100엔(1,000원)짜리 상품판매소, 편의점, 가공식품판매점 등의 판매처가 증가·다양화하여 이러한곳의 소비자구매의욕이 되살아나고 있다.

3) 공급면의 변화

- (1) 근년, 대란다산계의 도입으로 75%를 차지하는 상황이다.
 - (2) 대란은 전년도에 비하여 1.5% 전후 많은 추이를 보이고 중간크기 이하는 감소하고 있다.
 - (3) 다른 종계에서도, 난중의 증가경향이 있어 중간크기 이하의 산란기간이 짧아졌다.
- 이상과 같이 대체적인 것이지만 중간크기의 수요증가와 대란의 공급증가로 현시점에서 소란의 소비증가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2. 10~12월 일본농협사료가격 톤당 1,100엔 인상

일본 농협은 지난달 24일 금년 10~12월의 배합사료 가격을 전국 전축종 평균으로 1 톤당 1,100엔(11,000원) 인상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미국의 한발로 인한 사료의 주원료인 옥수수과 대두의 가격상승에 따른 것이다. 배합사료 가격의 인상에 따라 사료가금으로부터 1,050엔(10,500원)의 보전이 실시되지만 3/4분기에는 보전이 없었기 때문에 350엔이 인상되게 되었으며 가격인상은 다른 사료업체도 마찬가지이다.

주원료인 옥수수가 60달러 정도 인상하였고 대두 역시 인상되었기 때문이며 외환시장은 1 달러에 124엔(1,240원) 정도이지만 10~12월에는 119엔(1,190원)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것까지 겹쳐 원료가격의 인상요인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으로 이야기하였다.

양계용 배합사료는 평균 인상폭보다 200엔(2,000원) 정도 비쌀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사료관계자 사이에서는 사료곡물가격의 상승이 계속되어 내년 1~3월에는 또다시 인상될 것으로 사료가가격의 지속적인 인상을 우려하고 있다(이상 계명신문 발췌).

표1. 동경계란가격

(단위: 엔, 일본 계명신문 발췌)

| 크 기 | LL | L | M | MS | S | SS | 입하량 |
|-----|-----|-----|-----|-----|-----|-----|------|
| 가 격 | 185 | 195 | 200 | 185 | 180 | 110 | 910톤 |



육 계

1. 재래닭 인증

토종닭고기의 JAS인증(생산공정관리자)은 도쿠시마(徳島)의 토종닭과 기후(岐阜)의 토종닭에 이어 3번째와 4번째이며 재래닭의 소규모사업자에게는 처음이다

기수닭(紀州鶏)은 모리(森)부화장 와까야마(和歌山)공장이 생산(재래닭에 대한 생산공정관리자)하는 토종닭으로 재래종의 군계(軍鶏)가 수컷이며 화이트로드가 암닭이다. 농장에서 집중적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생산공정관리는 비교적 어렵지 않다고 한다.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도매형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물론 특정 JAS 마크를 붙일 수 있으며 편리한 포장(예를 들어 500g 진공포장)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JAS마크를 붙일 수 있다.

한편, 기수(紀州)토종닭은 미도리(みどり)농업협동조합이 생산하는 토종닭이다. 사쯔마종(薩摩種)과 나고야종(名古屋種)의 이원교잡종인 효고(兵庫)의 암닭과 열성백색 플리머드록의 수닭을 이용하였다

원종계의 개발은 효고갱(兵庫縣)의 중앙농업기술센터이며, 갱의 특산품으로 보급하려는 방침으로 JAS토종닭의 인증을 받는 것과는 상관없이 원종계를 공급하기 위하여, 같은 원종계이지만 일반상품과 JAS토종닭의 차별화를 위해 시육방법을 달리하여 판매하고 있다. 미도리농협의 생산규모는 월 3,000수 정도이다(계명신문 발췌).

2. 10월초 정육 입하량 증가예상

특별판매에 힘입어 전체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동지역의 경우 할인판매점으로부터의 물량 주문에 의해 10~20%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관서지역에서도 할인판매점의 주문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물량은 미량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판매량의 예측은 할인판매에 대한 기대가 한층 높아져 있고 넓적다리 고기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관동지역에서의 넓적다리고기는 전체의 90%가 구매력이 강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가슴고기의 구매력은 다소 강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관서지역에서도 관동지역과 같이 넓적다리 고기의 구매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이 많았고 부산물인 날개와 근위의 판매 역시 증가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가격의 예상은 관동지역의 경우 넓적다리 고기의 가격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가슴고기는 대체적으로 지금과 같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관서지역에서는 닭고기 가격을 관동지역과 유사하게 예상하고 있어 넓적다리 고기의 가격은 상승될 것이라 보인다(日本食鳥協會자료 발췌).

표2. 8월 닭고기 수입가격

(도매가격: 단위 엔, 日本食鳥協會자료 발췌)

| 품 목 | 국 별 | 동 경 | 오오사까 | 품 목 | 국 별 | 동 경 | 오오사까 |
|---------------|-----|-----|------|--------|-----|-----|------|
| 뼈포함넓적 다리고기 | 미 국 | 292 | 238 | 넓적다리고기 | 브라질 | 313 | 276 |
| | 태 국 | 375 | 372 | | 태 국 | 313 | 285 |
| | 브라질 | 375 | - | | 중 국 | 240 | 270 |
| 가슴고기 | 태 국 | 325 | 300 | 꼬치고기 | 태 국 | 598 | 477 |
| | 중 국 | 315 | 325 | | 중 국 | 520 | 438 |

※ 상세한 내용은 한일사료 기술연구소로 문의 바람 (031-280-4046)